



韓國의 크리스마스 썸 夜話 끝

—희귀한 미발행 썸 첨부 실체 봉피에 얽힌 이야기—

이창성 / 크리스마스 썸 동호인, 수집가

1. 1940년 미발행 썸에 이르는 경위

서기 1940년은 소화(昭和)년호로 15년에 해당되어 낙양의 화려함을 보이는 소위 기원 26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군국주의자들의 군화소리는 요란하기만 했다.

이 해부터 3년전 중국대륙에서 시작된 중일전쟁은 세계 제2차대전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그 예비공작으로서 백인축출정책을 펴게 되었는데, 축출의 이유로서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썸의 도안이 문제가 되었으며, 터무니없는 이유가 크로스-업하게 되었다.

2 셔우드·홀(Dr. Sherwood Hall)의 수난

일본관헌에 의하여 1940년 발행된 크리스마스 썸은 인쇄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몰수되어 억울함을 보게 되었다. 아이로니컬한 일은 같은 해에 셔우드·홀 박사는 항결핵사업에 공헌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황(日皇)으로부터 5,000 ¥(2,500\$) U.

S)을 하사받았다.

3. 몰수의 이유

A. 서기년도의 사용

1932년부터 1939년까지 8년간이나 계속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서기년도의 사용이 문제가 되어 트집을 잡았다.

B. 군기밀법 위반

20m 이상의 고산을 그리면 안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웃지도 못할 일로 군기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지만, 서기년도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일을 가일층하는, 이유가 안되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일본 우정당국은 한국의 명산 금강산을 그린 보통우표(Scott No. 264)를 1937년부터 발행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금강산은 해발 1,638m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제멋대로 이유없는 이유를 붙인 것이다.

셔우드·홀 박사는 동분서주하여 서기년호인 <1940~1941> 대신에 썸 발행 9년째라는 <NINTH YEAR>라고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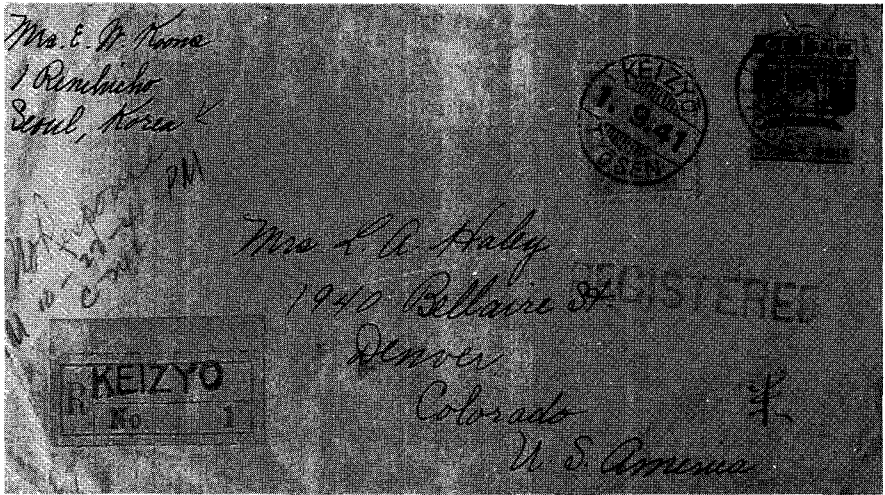


그림1. 미발행 싹 실체봉피 앞면.

하였고, 해발 20m이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고유의 대문을 배경으로 확대하여 겨우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안가 엘리자베트 케이트(Elizabeth Keith)는 대문 안에 산의 배경을 그리고 있으며, 원도에는 있는 도안자의 이니시얼 <E.K.>가 삭제된 것은 부당한 이유로서 압수와 도안의 정정에 대한 무언의 항거라고 볼 수 있다.

4. 미발행 싹 첨부 실체봉피 발견

1940년 미발행 싹 압수사건부터 약 1년 후의 1941년 9월 1일에 미국인 복장로교(福長老教)신자이며 의사인 Dr. E. W. Koons 씨는 종교교육기관 계통의 유명한 경신학교의 교장 부인이 미국주사로 발송한 선편등기의 경성(京城) No.1 경성의 로마자 철자가 약간 이상한 철자이다.

일본 보통우표 일광 양명문(日光 陽明門) 6전(Scott No. 195)과 일본 3경의

하나인 엄도신사(嚴島神社) 30전(Scott No. 271)의 2매의 우표에는 소인이 우표 전면에 걸치는 소인이 압인되어 있으며, 한장은 옆으로 한장은 반대로 첨부되어 있는 비취봉피인 것이 분명하다.

표면으로 봐서는 극히 평범한 봉피에 지나지 않으나(그림.1 참조) 이면에 아무튼 작위없이 첨부된 미발생 싹에 2개의 도착인이 1개는 싹에 스치어 압인되었고, 다른 1개는 1/4이 싹에 선명하게 압인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게 흥분을 참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일부인, 국명까지 판독할 수 있으니 할 말이 없다. 목적인 최종국인 Capital Hill 등 기계에서 일부인이 봉투를 보수한 테이프상에 압인되어 있었다.

1941. 10. 27일 오전 오후 두번에 걸쳐 배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이 없음에 해당하는 "응답 없음"이라고 봉투표면에 연필로 쓰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봉피인 까닭에 봉투에 주름은 있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현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품에 속하는 봉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근래에 없는 우취계의 일대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광주의 유명 우취가로부터 수집품을 일괄 분양받은 가운데 하나인데 비장되어 있는 미발행 싹 첨부 실체봉피 자료 제공과 발표를 쾌히 승락하여 주신 서울의 싹 수집가 서원석 씨께 이 지면을 통하여 깊은 사의를 드린다. (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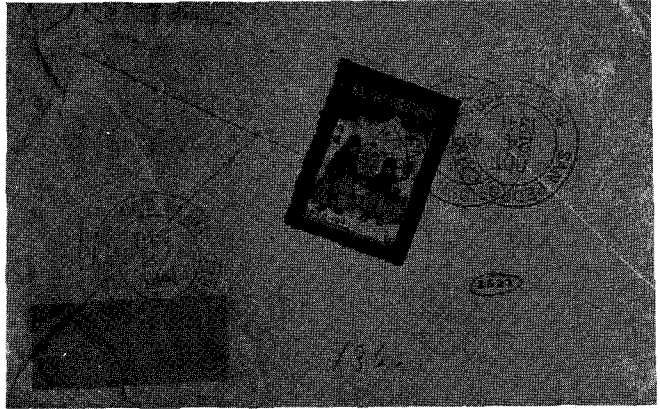


그림2 미발행 싹 실체봉피 뒷면.

5. 미발행 싹의 현존수량과 문제점

필자와 홀 박사와의 면담이 수년 전에 실현되어 미발행 싹의 존재 경위를 알게 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0년 9월 하순에 인쇄소에서 바로 인쇄한 싹 중에서 싹첨에 철하기 이전의 싹 8매가 한장의 pane이 되어 있는 것중 2팬을 크리스마스 싹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는 당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에게 발송한 것을 후일에 홀 박사가 입수를 하여 그중의 田형 4매를 1932년부터 1940년까지의 싹과 함께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존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필자가 알고 있는 국내의 실존수는 8매이고,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6매가 세계 최대(?)의 미발행 싹 BLOCK으로 지목되어 있다.

그런데 초판의 제작과정중 5×2의 팬(Pane)과 전지도 인쇄되었을텐데 5×2의

팬과 전지에서 떼어낸 사방천공이 있는 단편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철저히 몰수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그러나 이 봉피에 첨부된 미발행 싹은 그 16매중 1매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몰수의 과정중 소각에 이르기까지 몇장이 새어나왔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Dr. Hall의 영애 Mrs. Phyllie Hall King 여사가 한국 크리스마스 싹 발행 50주년에 해당하는 1982년에 Japanese Philately의 12월호(VOL. 37)에 기고한 내용에서 미국에 있는 싹 수집가들의 우편주문에 극히 소수이나 미발행 싹을 발송하였다고 하는 기술이 있어 16매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또한 Dr. Hall이 가장 존경하는 Dr. Edwin Wade Koons 씨에게도 이러한 것이 발행되었다고 하여 몇장 혹은 팬으로 한 장 정도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성립될 듯하다. 따라서 미발행 싹의 현존 수량은 16매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국 크리스마스 싹 수집가에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큰

희망과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미발행 썰의 팬이 2×5=10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며 2×4=8매 는 팬 10매중 2매를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집가가 있어 앞으로의 규명이 흥미진진하다.

6. Dr. E. W. Koons의 편모

참고로서 봉피 발송자의 주인은 한국 명이 군예림(君茂林 - Edwin Wade Koons)이다. 1880년 8월 2일 미국 뉴욕 주의 Itake 부근에서 출생하였고, 1900년에 Corall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후 1903 Oven신학교를 졸업후 복장로교(福長老教) 해외선교부 전도국으로부터 1903년 10월에 한국으로 갈 것을 명령받았다.

내한직후 평양에서 약 2년 정도를 한국어 익힌후 한국에서의 전도사업을 시작하였다. 1913년에서 1938년까지 25년 간은 경신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자와 대립하게 되었으며 백인축출정책으로 1942년 7월에 추방되었다.

eDr. Hall 씨도 이 사람에게는 사숙하고 있는 점이 보이며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에도 세군데나 등장하고 있다. 일본헌병에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던 강직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1945년 10월의 어느날 미국의 소리 방송망에 의하여 “나는 경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이 해방된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지금은 남산에 올라가서 신사참배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라고 방송도 했던 그는 2년간의 투병후 47년 11월 29일 뉴욕

의 론구아일랜드의 수이드 암프타운에서 부인과 1남5녀를 남겨 두고 별세하였다.

7. 연재를 마치며

보건세계 1990년 6월호부터 1992년 6월호까지 장장 25회라는 긴 연재에 대하여 어려운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김대규 씨께 감사를 드리며, 편집에 수고하신 편집부 여러분 특히 홍성모 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줄고가 대한결핵협회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한국 크리스마스 썰 정해>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줄고에 대하여 미흡한 점은 따가운 질책과 함께 애독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8. 인용 및 참고문헌

1)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1978, Mclean Verginia, by Sherwood Hall, Page 298, 583-584, 589.

2) 보건세계(1991년. 2월호-대한결핵협회 발행.)

3) JAPANESE PHILATERY, Dec. 1982, VOL. 37, No. 6, Page 252.

4) THE CHRISTMAS-TUBERCULOSIS SEALS OF KOREA, Korea Stamp Society, by Mrs. Helen K. Zirkle.

5)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 Charity Stamp Society, by Henry Irwin.

6) 경신사(敬神史)-경신학교 발행. 卍